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8호 부석사 무량수전



무량수전

문인수

나는 바람이 되어 무량(無量)하다.

용의 눈을 마음에 박으니

저 한꺼번에 꿈틀대는 녹음, 잎새 잎새들이 전부 비늘이다.

어느 날은 또 바위가 되어 도적떼를 물리치고

공중에 사뿐 앉아 그대로 지키나니.

“저 이마에 흐르는 땀 봐라.”

-의상대사는 마침내 이 절[浮石寺]을 마무리지었다. 무량수전(無量壽殿)에, 극락정토 한복판에 아미타여래불을 모신 일!

내 이름은 선묘, 지금도 바람이다.

화엄 아래 무량, 무량한 여자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문인수 시인은... 1945년 경북 성주 출생. 1985년 <심상>으로 등단. 시집 <쉬> <배꼽> 등.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법회 봉행

조계종 前 중징이자 선지식이었던 성철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열렸다.

재단법인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과 성철 스님 문도회(회장 원택)는 3월 11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퇴옹당 성철 대종사 탄신 100주년 다례제'를 봉행했다.

행사는 법회는 명종, 개식, 삼귀의, 어장동주 스님의 종사영반, 육성법문, 월서 대종사의 행장소개, 종정 법어, 원로회의 의장의 추모사, 헌사, 문도 기념사, 헌화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 선각 스님(해인사 주지), 월서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동주 스님(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장), 원택 스님, 현해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지원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현응 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을 비롯한 2000여 사부대중들이 모였다.

종정 법전 스님은 도문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성철 노사께서는 조선과 일제의 오백년 아픔을 털어내고자 절치부심 하셨으니 아름다운 이름은 백세(百歲)토록

삼남(三南)을 두루 적셨습니다”라며 “자금(紫金) 성인의 탄강은 억만인의 천년 영광이 되었고 눈 푸른 선사의 선래(善來)는 백년토록 빛으로 화(化)했으니 일체중생은 타성과 구습을 멈추고서 스스로를 반조(返照)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불교 현대화 미완일 당시

의제·복식 등 종단 표준 제정

청빈·정진 귀감된 선지사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현해 스님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올해는 큰스님이 나신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로 스님께서는 한국불교가 미처 틀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 출가수행의 인연을 통해 서릿발 같은 정진과 청빈의 삶으로 팔정도(八正道)를 실행으로 보이셨다”며 “중생의 몸으로 부처에 이르는 길을 일생의 일상적인 수행으로 실천하셨다. 인연 있는 사부대중 모두가 성철 큰스님을 지혜와 복덕을 본받아 지혜의



3월 11일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법회에서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이 추도문을 낭독하고 있다.

눈을 뜨고 진리의 거울에 맑게 비친 각자의 본래 면목을 볼 수 있기를 갈망(渴仰)합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큰스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진언을 남기셨지만 탐심과 어리석음에 물든 중생들은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스님의 진언은 수행자와 불자는 물론 국민의 진언으로 우리들의 신구의(身口意)

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지승 스님의 헌사를 대독한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큰스님은 당대의 큰 스님들과 함께 승가의 본분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 의제와 복식 등 우리 종단의 현재를 이끌어낸 주역”이라며 “철저한 수행을 통해 수행자의 길을 보여주셨고 3000배와 참회 정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체득하는 법을 가르치셨다”고 추모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 선출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차기 주지 후보에 현조 스님이 선출됐다.

법주사는 3월 12일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선거인단 289명 가운데 252명이 참가해 투표 결과, 100표를 얻은 현조 스님이 당선됐다.

현조 스님은 86표, 성일 스님 66표를 얻었다. 후보스님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던 장주 스님은 한 표도 얻지 못했다.

현조 스님은 후보선출에 대한 선거소청이 없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9일 당선증을 교부 받을 예정이다. 이후

총무원장 스님의 임명장 수여 후 현 주지 노현 스님의 임기 만료일인 4월 18일 이후 법주사 주지 소임을 맡게 된다.

현조 스님은 혜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86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했다. 14·15대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국제선센터 주지 등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자



“법주사 주지선출은 무효”

장주 스님, 당선무효확인 소청 제기

3월 12일 법주사 주지후보 선출 결과를 두고 선거 및 당선무효 확인 선거소청이 제기됐다.

법주사 주지후보로 출마했던 장주 스님(포항 오여사 주지)은 13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주사 주지후보 당선자는 운영위원스님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말사 주지직을 주겠다고 매수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7일에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법주사 주지후보들의 금품선거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기했다.

장주 스님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문서에서 “중앙선관위가 호법부 조사를 무형의 처리하고 선거를 강행한 것은 절차상 오류이다”라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승가촌 조성 승려노후복지 매진”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설운 스님

순천 선암사 제29대 주지로 설운 스님이 취임했다.

설운스님은 취임사에서 “선암사는 근세에 조계종과의 갈등으로 인해 꽃을 피지 못해 가슴 아프다. 앞으로 시대에 발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지금까지 선암사에서는 특이한 형태의 사찰운영이 진행됐다”며 “조계종과 대화를 중시하는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설운 스님은 선암사 중요현안에 대해 “현재 재정 확충방안과 총림활성화 방안

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성지순례 등을 유치해 재정 수입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승려노후복지시설에 큰 관심을 갖고 준비 중이다.

“사찰 아래 승가촌을 조성해 복지법인으로 만들어 노스님들을 안정적으로 모시겠습니다.” <관련기사 8면>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교회에 토지임대’ 수은 스님 문서견책

새문안교회와 토지 임대계약을 이면 작성해 초심에서 제적 징계를 받은 수은 스님(파주 보광사 주지)의 징계가 문서견책으로 확정됐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범등)은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72차 심판부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심호계원은 계약으로 파주 보광사에 재산상 손실이 없고 담당 총무원 과실도

있다고 판단해 “이후 문제 발생시 주지직을 사임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해당 총무원을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조건을 첨부했다.

이날 호계원은 불사 과정에서 횡령 등 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징지 3년 징계를 받은 진기 스님도 문서견책으로 징계를 감경했다.

조동섭 기자

생전예수재 및 가사불사 안내

통도사에서는 윤삼월을 맞이하여 생전예수제生前豫修齋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들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중생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면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업은 참회하고 현재의 업을 청정히 하면 당래에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하셨습니다. 윤달을 맞이하여 선망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현재를 닦아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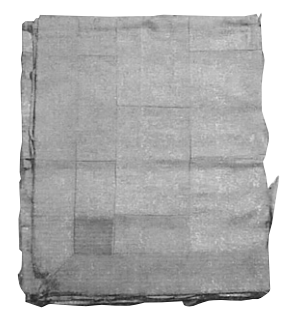
- 입 재 _ 2556년 4월 1일(음 3.11) 오전 10시
- 회 향 _ 2556년 5월 20일(음 윤3.30) 오전 8시
- 동참금 _ 설판 100만원 | 동참 5만원 | 영가1위 1만원
- 문 의 _ (055)382-7182, (055)382-1288(화음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천도재 봉행



통도사는 부처님의 친작가사와 남산율종의 종조이신 자장스님의 친작가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에 본사에서는 윤달을 맞이하여 부처님과 조사의 법을 상징하며 중생에게는 한량없는 복덕을 주는 복전의라 전해지는 가사를 지어 전국의 대덕스님들께 공양올리는 가사불사를 봉행합니다.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중에 으뜸인 가사불사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짓는 기회 되시기를 발원합니다.

- 입 재 _ 2556년 4월 1일(음 3.11) 오전 10시
 - 회 향 _ 2556년 5월18일(음 윤3.28) 오전 10시
 - 동참금 _ 스님지정(50만원), 대가사(10만원), 오조가사(5만원)
- ※스님을 지정하여 가사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친척 금관가사.



자장율사 친척 금관가사.

- 통도사 : 055)382-7182, 055)381-1288 FAX 055)382-7196
- 부산 : 052)816-2241(부산포교당) ■창원 : 055)255-6359(구룡사)
- 울산 : 052)211-3340(해남사) ■밀양 : 055)352-1150(표충사)
- 창원 : 055)246-8393(마산포교당) ■서울 : 02)757-7766(서울구룡사)
- 창녕 : 055)533-2295(창녕포교당)



불지종가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도명 합장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www.tongdosa.or.kr